

1950~60년대 한국 정치학계의 미국 정치학 수용 양상*

— ‘행태주의(behavioralism)’ 정치학 수용을 중심으로 —

홍 정 원**

- I. 서론
- II. 1930~40년대 미국에서 행태주의 정치학의 형성과 체계화
- III. 한국전쟁 이후 한국 정치학계의 행태주의 정치학 소개와 수용
- IV. 1960년대 전반 행태주의 정치학의 확산·정착과 비판의 논리
- V. 결론

• 국문초록

1950년대 후반 한국 정치학계에는 행태주의(behavioralism)로 대표되는 미국 정치학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를 주도했던 정치학자들은 정치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정치행태’에 대한 심리학적, 통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병적인 정치행동’에 대해 진단, 조정, 수정할 수 있는 행태주의 정치학이 갖는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영국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에 대비하여 저개발국가의 정치체제가 갖는 불균형성과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이를 정치화 또는 정치교육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 확산 과정에서 일부 정치학자들은 행태주의정치학에서 ‘이념’과 ‘가치’의 문제가 주변화, 배제되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으며, 표면적인 정치현상의 계량화에 치중한 행태주의정치학은 ‘후진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주제어

행태주의, 근대화론, 윤천주, 민병태, 권윤희,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I. 서론

본고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과학의 학술지식체계 변동 양상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전후 한국 정치학계에서 본격화되었던 미국 정치학의 수용 양상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본고의 주제는 크게 보아 2가지 차원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전쟁 이후 냉전 수행과 긴밀히 결부되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미국의 지적, 문화적 영향력 확대 과정의 일환이라는 측면, 다른 하나는 분과학문(discipline)으로서 정치학에서 나타난 학술지식체계 변동에 관한 문제이다. 본고는 주로 후자의 관점에 근거하여 그 변동 양상에 다가서려는 시도이며, 이를 통해 전자의 측면에 대한 이해 또한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 사회의 정치·군사·경제·문화 제반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지적,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 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대한 교육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임대식의 선구적인 연구를 비롯하여,¹⁾ 미국의 공보활동과 원조 프로그램을 매개로 나타난 미국의 문화전파와 헤게모니 구축 문제를 분석한 허은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²⁾ 이후 연구 주제와 영역이 보다 세부적으로 확대되어 미국 기술·교육원조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³⁾

-
- 1)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 2)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3)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한진금, 「1950년대 미국 원조 기관의 대한 기술원훈련 계획 연구」, 『한국사론』 5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0; 김명진, 「1950년대 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미네소타대 프로젝트 사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김지연, 「전후 미국의 한국 교육 원조, 1956~1962: 피바디프로젝트 사례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의 민간재단으로서 아시아재단과 한미재단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⁴⁾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전후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지적, 문화적 영향력 확대 문제가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미국의 전략과 목표, 방법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행위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 주체로서 설정되는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의 지적, 문화적 재생산 체계가 갖는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는 주된 분석 요인으로 설정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본다면, ‘대학’을 축으로 형성되었던 한국사회의 지식 재생산 체계 속에서 미국발 지적, 문화적 체계는 어떠한 형태로 자리 잡는 가운데 작동하였는가를 해명하는 작업으로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문제설정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미국발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수용 문제였다. ‘근대화론’을 미국의 대외노선, 대한정책에 대한 분석과 사실상 동일시했던 연구 경향⁵⁾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여 ‘근대화론’의 이념적, 이론적 특성을 살피고, ‘근대화론’이 한국, 일본으로 이식·확산되는 과정을 다룬 연구가 제출되었다.⁶⁾ 이들 연구는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4)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역사적 성격」, 『한국사론』 6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6;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한국학연구』 3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학연구』 40집에 수록된 다음의 논문을 참조. 정종현,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KRC)” 지원 연구」; 공영민, 「아시아재단 지원을 통한 김용환의 미국 기행과 기행 만화」; 박연희, 「1950년대 한국 펜클럽과 아시아재단의 문화원조」; 이순진, 「아시아재단의 한국에서의 문화사업」.
- 5) 정일준, 「미제국의 제3세계 통치와 근대화이론」, 『경제와 사회』 57, 비판사회학회, 2003; 박태균, 「1960년대 초 미국의 후진국 정책 변화: 후진국 사회변화의 필요성」, 『미국사연구』 20집, 한국미국사학회, 2004; 박태균, 「로스토후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 역사비평사, 2004.
- 6) 김정현, 「1960년대 근대화노선의 도입과 확산」,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3』, 풀빛, 1991; 정일준,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 미국

‘근대화론’이 전파·확산되는 과정에서 개척되었던 한국과 일본의 주요 학술대회나 한국학계의 움직임에 주목하였으나, 그러한 동향의 형식적 유포만을 제시했을 뿐 한국 학계와 지식인들의 제도적, 학문적인 대응 양상이 추적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파와 수용·확산 문제는 향후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주제이지만, 단순한 전파와 확산의 시야 보다는 기존 한국 학계의 사상적, 학문적 지형을 아우르는 가운데 그것이 미친 영향과 수렴·습합, 긴장의 문제를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정치학계에서 나타난 미국 정치학, 특히 행태주의 정치학의 소개와 수용, 그리고 정착과 주류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학문분과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 사회과학의 학술지식 체계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해방 이후 정치학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과학계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대체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일본 제국의 고등교육체계 속에서 학술지식을 습득한 존재였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동 속에서 학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는 가운데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점차 미국 사회과학의 학술지식체계로 그 학적 모태의 전환을 주도하거나 또는 그 전환과정에 대응해야 했던 것이다. ‘정치학’ 분야의 경우, 그와 같은 전환 과정의 핵심에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치학계의 ‘학술사(學術史)’를 정리하는 수편의 논고에서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 문제는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⁷⁾ 1950~1960

근대화론의 한국전파와 한국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7권 3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05; 임성모, 「냉전과 대중사회 담론의 외연: 미국 근대화론의 한·일 이식」, 『한림일본학』 26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7) 1970년대 ‘한국현대문화사대계’, 2000년대 한국정치학회 학회사, 학술원의 학술사 편찬에 수록된 논고로 다음을 참조. 金河龍, 「政治學」, 『韓國現代文化史大系(2): 學術·思想·宗教史(上)』,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6; 이정복, 「정치학 방법론과 정치이론」, 韓國政治學會五十年史 編纂委員會, 『韓國政治學會五十年史(1953~2003)』, 韓國政治學會, 2003; 차기벽, 「총론: 한국정치학의 연구경

년대 ‘행태주의 정치학’ 수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김하룡은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을 계기로 ‘정치현상’을 ‘국가현상’, ‘제도연구’에 국한시켜 연구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政治過程과 聯關된 人間の 모든 行態에 관한 經驗的 研究”로 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수학적인 계량 분석”의 방법을 토대로 정치학자들 스스로 “政治學의 科學性”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韓國 政治學의 發達에 있어서 劃期的 轉換點을 마련”한 것으로 높게 평가하였다.⁸⁾ 그에 반해 1980년대에 들어 진덕규, 정해구 등은 ‘행태주의’를 중축으로 한 1950~70년대 한국 정치학계의 지배적 학문 경향에 대해 ‘반공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미국적인 편향성’이 짙은 ‘미국 정치학의 아류’로서 한국의 정치현실로부터 괴리되어 현실적실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⁹⁾ 하지만 이들 논고는 1950~60년대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과 주류화라고 하는 사후적인 ‘결과’만을 문제 삼는 데 그치고 있으며, 그 수용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대 정치학계의 지적 지형과 학문 동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최근 1950년대~60년대 정치학계의 학문적 특성과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으로의 전환을 다룬 본격적인 연구가 제출되어 주목된다.¹⁰⁾ 기유정의 연구는 1950년대~60년대 정치학 개론서의 내용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앞서 지적한 기존 ‘학술사(學術史)’ 논고가 갖는 제한성을 상당부분 극복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행태주의(behavioralism) 정치학의 수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천주(尹天柱)의 “학적 전환의 논리”를 미국 중심의 “정치적 패권론”과 “학문독립(탈식민주의)을

향과 발전방향, 대한민국 학술원 편, 『한국의 학술연구: 정치학, 사회학(인문·사회과학편 제9집)』, 2008.

8) 金河龍, 앞의 글, 264~265쪽.

9) 陳德奎,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 1, 한길사, 1983; 정해구, 「한국사회현실과 한국정치」,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준비위원회 편, 『8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 참조.

10) 기유정, 「근대 한국의 정치학과 그 학적 전환의 논리」, 『정치사상연구』 20집 1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14.

중첩”시키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은 윤천주 뿐 아니라 다수의 정치학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태도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유정의 연구는 불충분한 자료 조사로 인해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으로 인해 나타난 1950년대와 1960년대 정치학개론서의 단절적 양상에만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당대 ‘정치학’의 학술지식체계 전환 과정과 양상을 일면적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보였다. 가령 본고의 제Ⅲ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의 『政治學原理』(1952)를 비롯하여 패전 이후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 속에서 산출되었던 일본 정치학계의 정치학 연구가 한국 정치학자들의 저술에 미친 영향 등은 사실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 확산 속에서 한국 정치학계에서 제기되었던 ‘비판론’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 수용을 둘러싼 나타난 당대의 지적 지형과 학문 동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조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의 형성과 체계화 속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이론적 내용과 성격을 요약한 다음, 한국전쟁 이후 한국 정치학계에서 미국 정치학계의 행태주의 정치학을 소개, 수용했던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한국 정치학계의 지배적 학문체계로 정착, 확산되었던 과정과 더불어 그에 대한 비판론을 검토함으로써 행태주의 정치학 수용을 둘러싼 당대의 지적 지형을 그려내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과학 학술지식체계의 재편, 전환 양상에서 담긴 특성의 일단에 다가서고자 한다.

II. 1930~40년대 미국에서 행태주의 정치학의 형성과 체계화

한국 정치학계에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이 소개, 수용되었던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행태주의 정치학이 갖는 이론적 특성과 역사적 성격에 대

한 검토가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 정치학계에서 행태주의 정치학이 형성, 주류화되었던 과정을 중심으로 그 요점만을 살펴보려고 한다.¹¹⁾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메리엄(Charles Merriam), 캐틀린(George E. G. Catlin), 먼로(William B. Munro) 등 일군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학문적인 움직임은 기성의 정치학이 역사적 접근법이나 추상적·사변적 철학으로부터, 그리고 법적·제도적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실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적 유효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찰스 메리엄은 정치학이 개별적인 ‘정치 행태(political behavior)’¹²⁾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토대를 초점화해야 하며,

-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Robert Dahl, “The Behavioral Approach in Political Science: Epitaph for Monument to a Successful Prote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5, No.4, Dec., 1961; Albert Somit and Joseph Tannenhaus,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llyn and Bacon, 1967; John Gunnell, “American Political Science, Liberalism, and the Invention of Political Theory”, James Farr and Raymond Seidelman, ed., *Discipline and Histo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Terence Ball, “American Political Science in Its Postwar Political Context”, James Farr and Raymond Seidelman, ed., op. cit.; James Farr, “Remembering the Revolution: Behavioralism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James Farr, J. S. Dryzek, S. T. Leonard, ed., *Political Science i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Charles E. Lindblom, “Political Science in the 1940s and 1950s”, Thomas Bender and Carl E. Schorske, ed., *American Academic Culture in Transformation: Fifty Years, Four Disciplin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Nils Gilman, *Mandarins of the Futu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chap. 4; 하인쯔 올라우(Heinz Eulau), 「美國政治의 理解—政治學의 寄與」, 具永祿 편, 『美國의 社會科學: 回顧와 展望』, 博英社, 1984; 이계희, 『정치학사』, 을유문화사, 1998, 제1장·제2장·제5장; 헤라르도 몽크, 「비교정치학의 어제와 오늘」, 헤라르도 몽크, 리처드 스나이더 인터뷰, 정치학강독모임 역,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정치학자가 되었나(1)』, 후마니타스, 2012; 中谷義和, 「戰後アメリカ政治學の系譜」, 田口富久治·中谷義和 編集, 『現代政治の理論と思想』, 青木書店, 1994; 中谷義和, 『アメリカ政治學史序説』, ミネルヴァ書房, 2005, 제2장~제3장.
- 12) ‘political behavior’에서 ‘behavior’는 심리학에서는 주로 ‘행동(行動)’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정치학을 비롯한 여타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행동’, ‘행태’ 등을 혼용하고 있다. ‘행태(行態)’라는 번역을 주도하여 확산시켰던 것은 윤천주(尹天柱)에 의해서였다. 그는 ‘행태’로 번역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험주의의 입장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양적(量的) 검증을 통해 실증적, 실험적인 분석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가 새로운 ‘정치학’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향의 정치학을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이나 당대 심리학 연구를 토대로 하여 실제 연구를 통해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메리엄의 제자였던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었다.

해럴드 라스웰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행태주의 정치학의 부상을 이끌었던 데이빗 트루먼(David Truman), 키(V. O. Key),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가브리엘 알몬드(Gabriel Almond) 등은 메리엄이 이끌었던 시카고대학교 제자들이었다. 이후 1940년 메리엄의 은퇴와 전쟁 외중에 있었던 이직(移職) 등으로 인하여 라스웰과 가브리엘 알몬드, 칼 도이치(Karl W. Deutsch), 로버트 달(Robert A. Dahl) 등이 재직했던 예일대학교가 1950년대까지 전후 행태주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40~50년대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는 자연과학의 엄밀함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과학을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범학문적 행태주의(behavioralism)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

“「비헤이비어」는 心理學的 概念을 包含하고 過程의인 概念인 것, 行動·行爲와 같은 再來의 우리 말들은 나타난 現象을 주로 意味하기 때문에 이러한 用語들을 使用할 때는 「비헤이비어」를 가리킬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區別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混亂을 일으키게 된다는 등의 理由에서 再來에 없던 用語를—적어도 一般이 「비헤이비어」의 概念을 行動과 區別하여 理解하게 될 때까지—使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行態」란 말을 使用하였다. 「行態」란 用語는 우리 辭典에도 없는 말이며, 좋지 못한 「행투」·「행티」의 方言으로 使用되고 있는 缺陷이 있는 用語이기도 하나, 「行動과 態度」의 約語로 보든지, 「웃입은 태가 좋다」는 式으로 「行하는 態」가 좋다는 意味로 理解하든지 어떻든간에 다른 譯語들 보다 더욱 「비헤이비어」의 概念을 混亂없이 傳할 수 있기 때문에 本人은 數年來 이것을 使用하여 왔다.” 尹天柱, 「序文」, 尹天柱·禹炳奎·李廷植 編역, 『政治行態의 基礎理論』, 一潮閣, 1960, 2쪽. 윤천주는 ‘행태’라는 번역을 취했지만, 비슷한 시기 김운태는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으며(金雲泰, 『政治學要論』, 博英社, 1961, 32·74·89·93·153쪽), 이상조는 ‘행동’과 ‘행태’를 혼용하고 있다(李相助, 『新政治學原論』, 서울高試學會, 1961, 46~47쪽).

할을 수행하였다.¹³⁾

그런데, 미국 정치학계에서 전간기(戰間期)부터 시작되어 1950~1960년대 절정에 이르렀던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의 추구, 그리고 역사적 귀결로서 ‘행태주의 정치학’의 주류화 과정은 분과학문 차원의 방법론적 전환에 한정하여 이해될 수 없다. 이러한 미국 정치학계의 학문적 전환은 전간기 파시즘의 대두, 대공황과 뉴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수행이라는 역사적 격동 속에서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경제적 재편과 맞물려 지식인층에 의해 전개되었던 ‘자유주의(liberalism)’ 재구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¹⁴⁾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는 20세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미국 정치의 주요 슬로건이자 이념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적 변동과 좌·우익 대중 운동의 고양 속에서 미국 사회 또한 듀이(John Dewey)와 리프먼(Walter Lippman)의 논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의민주주의의 이념과 현실은 정치학계 안팎에서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리프먼과 라스웰 등은 사회심리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등을 활용하여 인간과 대중의 비합리성, 선입견의 작용에 주목하여 ‘대중’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후 미국 정치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라스웰의 경우, 당시 유럽에서 발흥하고 있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연구의 흐름을 수용·활용하여 임상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정치 행태(political behavior)’를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경험적 연구로서 *Psychopathology and Politics*(1930)를 저술하였다. 라스웰은 이 책을 통해 “정치적 역할(role)과 이데올로기의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정치 행태(political behavior)”는 “사적인 동기(private motive), 즉 본질적으로 오이디푸스적(oedipal)이고, 리비도적(libidinal) 동기가 정치

13) Nils Gilman, op. cit., pp. 113~121.

14) 주로 ‘냉전’이라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지만, 카츠넬슨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카츠넬슨(I. Katznelson), 「비상사태를 조장하는 교활한 정치학: 자유주의의 후견인」, 노엄 촘스키 외, 『냉전과 대학』, 당대, 2001.

적 관념·이슈의 용어로 합리화되어 전치(displacement)¹⁵⁾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정치 영역은 사적인 심리적 장애가 전치되어 발현되는 장소로 되었고, 급진적 변혁을 열망하는 정치적 주장은 극단적인 심리학적 장애의 결과로서 간주되었던 것이다. 레닌, 히틀러 등 개인 뿐 아니라 파시즘의 대두, 히틀러와 스탈린에 대한 대중적인 열광과 지지, 더 나아가 ‘제3세계’ 혁명적 민족주의의 대중적 ‘정치 행태’ 또한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되었다.

그는 대중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고, ‘사회’는 과학으로 무장한 지식엘리트 즉,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하나의 질서(order)로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이후 그의 ‘정책과학(policy science)’의 체계화 작업으로 이어졌다. 그의 심리학적 접근법은 기존 법과 제도 중심의 지배적인 정치학 연구 경향에서 비정치적인(nonpolitical)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킴으로써 미국 정치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알몬드(Gabriel Almond)와 파이(Lucian Pye), 러너(Daniel Lerner) 등에게도 이어져 미국발 ‘근대화론’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했다.¹⁶⁾

라스웰의 심리학적 접근법도 그러하지만, ‘정치학의 과학화’를 주장했던 미국 정치학계의 흐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현상’의 과학적 인식에 의거하여 ‘진보’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15) 시카고대학교에서 1930년대 초반 라스웰의 강의를 들었던 가브리엘 알몬드(Gabriel Almond)가 라스웰 사후 그의 생애와 학문을 기념하여 작성한 논고에서 옮긴 것이다. Gabriel Almond, *A Discipline Divided*, Sage Publications, 1990, “(Appendix A) Harold Lasswell: A Biographical Memoir”, p. 294.

라스웰은 이러한 원리를 다음과 같은 일반식(general formula)으로 표현하였다.

$$p \} d \} r = P$$

p=사적인 동기(private motive), d=공적인 목표에의 전치(displacement on to public objects), r=공적 이익의 용어로 사적 동기를 합리화하기(rationalization in terms of public interest), P=정치적 인간(political man), 기호 }=변환됨(transformed into). Harold D. Lasswell, *Psychopathology and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1930, pp. 261~262.

16) 해럴드 라스웰의 정치학 연구의 특성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Gabriel Almond, *Ibid.*; Nils Gilman, op. cit., pp. 164~174; 中谷義和, 앞의 책, 第6章 참조.

발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 입각하여 산출되었던 초창기 ‘경험주의적 실증연구’는 정당과 이익단체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소수 엘리트 중심의 권력구조와 선거, 투표에 대한 대중적 무관심, 정치참여의 제한적 패턴 등 미국 정치현실의 여러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¹⁷⁾ 앞서 언급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대중’에 대해 불신, 회의하는 조류와 함께 경험주의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국 대의민주주의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1920~30년대 미국 사회의 정치체제와 이념을 어떻게 평가하고 구성해 갈 것인가, 그리고 ‘정치학의 과학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본다면 ‘이념’과 ‘과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다소 불투명한 시계(視界)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유럽 파시즘, 나치즘의 흥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가운데 ‘과학적 정치학’에 입각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파시즘·전체주의체제와 미국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기존 미국 정치질서를 적극적으로 옹호,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불투명한 시계(視界)는 걷히게 되었다. 즉, ‘과학적 정치학’에 입각하여 미국의 정치현실은 이념적, 실제적으로 ‘민주주의’라고 긍정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정치학자들에게 주목받았던 것이 슈페터(Joseph Schumpeter)의 ‘민주주의’관, 즉 인민들의 투표를 획득하기 위한 엘리트 집단의 경쟁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것이었고,¹⁸⁾ 이를 이어받는 가운데 ‘행태주의’에 입각하여 다원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던 것이 로

17)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의 이념과 현실을 둘러싼 정치학계의 주장들과 함께 ‘과학주의’의 전제로서 사실과 가치의 분리, 즉 ‘상대주의’와 ‘객관성’, ‘중립성’ 등의 문제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John G. Gunnell, *The Descent of Political The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3, chp. 5; 中谷義和, 앞의 책, 第2章 참조.

18) 슈페터는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에서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를 정의하였다. “민주주의적 방법은 정치적 결정들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 장치 안에서 개인들은 인민들의 투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결정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지프 슈페터 저, 변상진 역,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한길사, 2011, 480쪽.

버트 달(Robert Dahl)이었다.¹⁹⁾

이와 같은 ‘엘리트주의적,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론과 ‘행태주의정치학’의 결합, 일체화 속에서 대중의 정치적 참여는 ‘투표 행위’로 한정되는 가운데, ‘심각한 이데올로기적인 분열과 높은 정치적 참여’가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간주된 것에 대비하여, 넓게 확산된 정치적 무관심(apaty)과 비참여(nonparticipation)는 민주적인 정치체계의 안정성(stability)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해석되었던 것이다.²⁰⁾ 행태주의 정치학의 (미국) ‘민주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공통의 규칙(rule)’에 대한 합의 속에서 경쟁과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다원적인 ‘집단(groups)’의 활동으로 유지되는 균형(equilibrium) 모델에 입각한 것이었고, 대중적인 정치경제적 열망 또는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정치운동은 ‘민주정치’의 ‘안정성’, 즉 ‘균형’을 교란시키고 파

19) Robert A. Dahl,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1956.(로버트 A. 달 저, 김容浩 역, 『民主主義理論序說: 美國 民主主義의 原理』, 法文社, 1990).

1960~70년대 참여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맥퍼슨(C. B. MacPherson)은 밀(J. S. Mill)의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론과 이를 계승한 바커(Ernest Barker), 린제이(A. D. Lindsay) 등은 민주주의에 인류의 개선(improvement)과 관련된 발전적인 도덕적 이상을 부여하였다고 보았으나, ‘슈페터(Schumpeter)–달(Dahl) 축(axis)’이라고 명명했던 경험주의적 민주주의론에서는 앞선 고전적 민주주의론에 담긴 지향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는 단지 통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엘리트집단의 경쟁 모델로서 균형(equilibrium)을 유지하는 정치체제이자 메커니즘으로 정의된다고 보았다. Crawford B. MacPherson, *Democratic Theory: Essays in Retrieval*, Clarendon Press, 1973, pp. 77~79. 슈페터와 달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옮김, 앞의 책, 제5장·제6장 참조.

20) Bernard Berelson, Paul Lazarsfeld, William McPhee의 저작 *Voting*(1954)에서 표명되었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기능주의적(functionalist) 옹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다음 연구를 참조. Terence Ball, “An Ambivalent Alliance: Political Science and American Democracy”, James Farr, J. S. Dryzek, S. T. Leonard, ed., *Political Science i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56~58.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과 기권(棄權)에 대한 재의미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낮은 투표율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우려와 경계의 태도(H. F. Gosnell, *Getting Out the Vote*, 1927)에 견주어 본다면 ‘정치학의 과학화’를 주장했던 정치학자들의 미국 ‘정치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Nils Gilman, op. cit., p. 48.

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행태주의 정치학은 첫째, 정치연구의 초점(대상)을 ‘행태(behavior)’, 특히 집단(groups), 과정(processes), 체계(systems)에 깃든 정치 행태에 두었고, 둘째, 방법론으로서의 ‘과학(science)’, 즉 양화(量化)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사실적(factual)이고, 경험적인 조사 방법을 강조하여 자연과학에 흡사한 것으로 구축하려고 했다. 셋째 미국 정치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liberal pluralism)에 집중하여, 자유의 가치들에 의해 활성화된 다원주의 정치체계의 기본 윤곽을 설명하고, 확인하려고 하였다. 즉, 제임스 파(James Farr)가 지적한 바와 같이 행태주의 정치학자들이 미국에서 하나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정치체계’를 발견·설명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한, 사실(facts)과 가치(values) 사이에는 예정조화(preordained harmony)가 작동했던 것이다.²¹⁾

Ⅲ. 한국전쟁 이후 한국 정치학계의 행태주의 정치학 소개와 수용

1951년 전선이 교착되는 가운데 195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부산과 대구 등을 중심으로 대학 강의가 재개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대학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정부의 무능무위(無能無爲)한 문화정책, 문교정책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던 정책 목표와 명분은 ‘문화의 후진성’ 극복이었다.²²⁾

21) 제임스 파(James Farr)는 행태주의 정치학을 ‘행태’, ‘과학’,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3가지 축으로 전개되었던 지적 운동으로 파악하였다. James Farr, “Remembering the Revolution: Behavioralism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op. cit., pp. 201~206.

22) “(社說) 文化의 後進性과 그 克服”, <大學新聞>, 1952년 9월 15일 1면; 趙奎東, “(나의 提言) 翻譯機關의 設置”, <大學新聞>, 1952년 9월 15일 3면; “(社說) 文化政策의 貧困”, <大學新聞>, 1952년 9월 22일 1면; 異河潤, “文化政策의 當面課題”, <大學新聞>, 1952년 9월 22일 2면; “(紙上座談會) 文化政策 總批判”, <大學新聞>, 1952년 9월 22일 2면; “(社說) 留學生에 寄함”, <大學新聞>, 1952년 10월 20일 1면.

이러한 ‘문화의 후진성’ 극복을 위한 핵심적 방도를 당시 지식인들은 “선진 제외국의 우수한 문화를 수입”하는 것에서 찾았고, 그 우수한 문화를 수입하기 위해서 교수와 학생의 ‘해외 유학’, ‘외국 학자·기술자·예술가의 초빙’, ‘외국학술·문예도서의 수입과 번역’ 등을 들었던 것이다. 한국 전쟁기 대학에서 발행한 신문들은 이미 ‘해외유학’, 특히 ‘미국유학’에 대한 소식과 정보로 가득했다. 또한 국가의 해외서적 수입 금지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선진국가의 교재를 유입”하고 “대학교수들의 생활고로 인한 부업겸무를 하게 되는 딱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을 시작으로 ‘대학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도서 번역사업’이 계획, 실행되기도 하였다.²³⁾

이와 같이 전후(戰後) ‘번역의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는 전쟁으로 인한 지식인들의 ‘생활고’와 함께 ‘후진성’의 극복이라는 명분이 놓여 있었지만, 특히 대학교육 현장에서 직면한 절실한 이유 또한 존재했다. 한글로 된 ‘교재’의 부재(不在)였다. 식민지 교육제도로 인해 빈사상태에 놓여 있던 제반 교육 여건 중에서도 교육·학습 자료의 재편·확충 문제는 시급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 초·중등교육의 폭발적 확대에 의한 교과서의 제작도 문제였으나, 대학교육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글 텍스트가 극빈(極貧)했던 대학교육 여건의 타개는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전쟁으로 인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해방 직후에는 그나마 일본어 서적을 가지고 임시변통할 수 있었으나, 해방 이후 중등학교에 진학하여 한국전쟁기 대학에 입학했던 학생들에게는 그마저 불가능한 것이었다.

23) “外國의 書籍을 翻譯”, <大學新聞>, 1952년 4월 7일 1면; “待望의 外國書籍 出版計劃”, <大學新聞>, 1952년 5월 12일 1면; “良書 十卷을 翻譯決定, 서울大學 校出版委 事業推進”, <大學新聞> 1952년 6월 30일 1면; “翻譯良書 最終決定”, <大學新聞>, 1952년 7월 14일 1면; “翻譯書籍 選定規程”, <大學新聞>, 1952년 7월 14일 3면; “良書翻譯事業 東國大學서도 着手”, <大學新聞>, 1952년 11월 17일 2면; “圖書翻譯五個年計劃樹立”, <大學新聞>, 1953년 3월 26일 1면; “東大翻譯叢書 進行中, 研究費 이미 支出”, <東大時報>, 1955년 9월 5일, 1면.

그에 따라 한편에서는 각 대학 교수들이 직접 한글 교재를 집필했고, 다른 한편 외국 대학교재나 학술서적의 번역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도 정치학 개설서의 저술과 번역이 수권 이루어 지기도 했지만,²⁴⁾ 다수의 정치학자들이 1952년과 서울 환도 직후였던 1954년에 개설서를 발간했던 이유는 위와 같은 배경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며, 아래 <표 1>의 번역서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정치학계가 직면했던 곤경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저자	번역자	번역서(발행년)/원서명(발행년)
Gertrude A. Jacobsen, Miriam Lipmann	朴鶴壽 (愼道晟 교열)	政治學概論(1953) <i>An Outline of Political Science</i> (1937/1939)
Raymond G. Gettell	金敬洙	政治學概論(1955) <i>Political Science</i> (1949)
Harold J. Laski	閔丙台	政治學綱要(上/下, 1954) <i>A Grammar of Politics</i> (1937)
Harold J. Laski	姜尙雲	政治學入門(1959) <i>An Introduction to Politics</i> (1951)
Charles Merriam	金雲泰 李宇鉉	政治學序說(1955) <i>Prologue to politics</i> (1939)
Charles Merriam	金雲泰 李宇鉉	體系的 政治學(1956) <i>Systematic politics</i> (1945)
Robert M. MacIver	金雲泰 李宇鉉	政治學原論(1957) <i>The Web of Government</i> (1952)
蠟山政道	咸鍾贊	政治學原理(1956) <i>政治學原理</i> (1952)
Roger H. Soltau	金雲泰	政治學入門(1957) <i>An Introduction to Politics</i> (1951)
George de Huszar, Thomas Stevenson	韓圭鍾	政治學概論(1958) <i>Political Science: An Outline</i> (1951)

<표 1> 1950년대 정치학 개론서, 원론서 번역 목록

24) 해방 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 정치학 개론서의 저술·번역에 대해서는 홍정완, 「정부수립 전후 한국 정치학계의 학문 동향과 이념 지형-원론서·개론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8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참조.

제이콥슨(Gertrude A. Jacobsen) · 리프먼(Miriam Lipmann), 솔토우(Roger H. Soltau), 조지 드 허자(George de Huszar) · 토마스 스티븐슨(Thomas Stevenson) 등의 책은 당시 미국 대학 강의에서 활용되던 정치학 교과서였다.

라스키(Harold Laski)의 정치학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전후에 그 관심이 더욱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민병태가 *A Grammar of Politics*를 완역하였고, 강상운은 *An Introduction to Politics*를 번역하였다. 이들 정치학 원론서 외에도 라스키의 저작이 다수 번역·발간되었을 뿐 아니라²⁵⁾ 대학 학내신문, 학술지 등에서도 그의 정치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²⁶⁾ 전쟁을 거치면서 라스키의 정치적 다원주의, 민주사회주의의 이념과 함께 냉전, ‘반공주의’ 맥락이 더해져 그의 ‘사회적 자유’론이 주목받는 등 그 영향이 지속되었다. 또한 라스키와 유사하게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사회주의에 가까운 사상적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던 매키버(Robert M. MacIver)의 저작 또한 1950년대 정치학계에서 주목받았다.²⁷⁾

25) <표 1>의 저작을 포함하여 한국전쟁 이후 1950~60년대 번역되었던 라스키의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 李奭鍾 역, 『近代國家의 自由(Liberty in the modern state, 1948)』, 星座社, 1953; 閔丙台 역, 『政治學綱要(A Grammar of Politics, 1937)』(上)·(下)』, 民衆書館, 1954; 閔丙台 역, 『國家論: 理論과 實際(The State in Theory and Practice, 1935)』, 白映社, 1954; 姜尚雲 역, 『政治學入門(An Introduction to Politics, 1951)』, 民衆書館, 1959; 車基璧 역, 『立憲政治의 再檢討(Reflection on the Constitution, 1951)』, 民衆書館, 1959; 康文用 역, 『西歐自由主義의 起源』, 志文社, 1962; 申相楚 역, 『政治學講話(An Introduction to Politics, 1954)』, 奎文社, 1967.

26) 李元雨, “라스키의 生涯와 業績”, <大學新聞>, 1954년 6월 2일, 3면; 李東洲, “라스키의 國家論”, <大學新聞>, 1954년 11월 1일, 2면; 金永俊, “現代自由論: 라스키의 自由論을 中心으로”, <大學新聞>, 1955년 2월 7일, 8면; 民丙光, “現代의 自由理論: 라스키所論을 中心으로”, <東大時報>, 1956년 7월 4일, 4면; 金相浹, “라스키의 沒은 사라있다: 그의 七週忌에 際하여”, <高大新聞>, 1957년 3월 25일 2면; 金東斗, “라스키 自由論의 思想的 背景(上)(承前)”, <週刊成大>, 1958년 6월 18일/25일, 3면; 韓太壽, 「라스키의 國家論 研究」, 政治大學十周年學術誌編輯委員會 편, 『政治大學十周年 學術誌』, 政治大學, 1957; 尹謹植, 「라스키 自由理論의 時代的 性格」, 『政外學報』創刊號, 新興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57.

27) <표 1>의 저작을 포함하여 1950년대 번역된 매키버의 주요 저술은 다음과 같

제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행태주의(behavioralism)²⁸⁾ 정치학이 미국 정치학계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찰스 메리엄(Charles Merriam)의 정치학 원론서 2권이 김운태·이우현에 의해 번역되었다.²⁹⁾ 이 외에도 김성희에 의해서 *The Role of Politics in Social Changes*(1936)가 『社會變動과 政治』³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는 등 찰스 메리엄의 저작이 적극적으로 번역·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치학계의 원론서로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역된 저작이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의 『政治學原理』이다.³¹⁾ 이 저작에서 로야마는 ‘정치현상’을 “國家와 같은 社會組織을 中心으로 하는 形態의 現象과 社會的, 集團의 行動에 의한 行爲의 現象의 兩者를 포함하는 人間生活의 一面인 政治生活 그 자체”라고 정의하였다.³²⁾ 그는 패전 이전 자신의 ‘정치학’적 문제의식을 견지하여 ‘국가’보다 ‘사회’가 “인간생활에 대해 근원적, 창조

다. 金雲泰·李宇鉉 공역, 『政治學原論(The Web of Government, 1952)』, 韓國大學教材公社, 1957; 車基璧 역, 『民主政治와 經濟의 危機(Democracy and Economic Challenge, 1952)』, 國際語學會出版部, 1955; 閔丙台 역, 『近代國家論 (The Modern State, 1926)』, 民衆書館, 1957; 吳炳憲 역, 『民主主義原理新講(The Ramparts We Guard, 1950)』, 乙酉文化社, 1959; 安秉煜 역, 『幸福的 探求(The Pursuit of Happiness, 1955)』, 乙酉文化社, 1957; 金大煥 역, 『社會學入門(The Elements of Social Science, 1949)』, 白潮書店, 1959.

28) 기존 연구에 따르면, ‘behavioral science’을 추구하는 지적 운동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behaviorism’과 ‘behavioralism’의 용법은 양자가 혼용되면서도 1960년대 전반까지 전자가 우세하다가,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러 후자가 미국 정치학계의 표준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Albert Somit and Joseph Tannenhaus, op. cit., p. 183.; James Farr, op. cit., p.222.

29) 메리엄 저, 金雲泰·李宇鉉 공역, 『政治學序說(Prologue to Politics, 1939)』, 第一文化社, 1955; 메리엄 저, 金雲泰·李宇鉉 공역, 『體系的 政治學(Systematic Politics, 1945)』, 一潮閣, 1956.

30) C. E. 메리엄 저, 金成燾 역, 『社會變動과 政治』, 民衆書館, 1955.

31) 로야마 마사미치의 『政治學原理』(岩波書店, 1952)를 함중빈(咸鍾贊)이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蠟山政道 저, 咸鍾贊 역, 『政治學原理』, 現代文化社, 1956. 이외에도 로야마의 저작 『比較政治機構論』(岩波書店, 1950)이 이종항(李鍾恒)의 감수(監修)를 거쳐 번역·출간되었다. 蠟山政道 저, 編輯部 역, 『比較政治機構論』, 啓明文化社, 1955.

32) 蠟山政道 저, 咸鍾贊 역, 위의 책, 95쪽.

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생활”을 “공동생활”로서 접근하였다. 그의 『政治學原理』는 행태주의정치학과 그 기본 문제의식이나 접근법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 정치학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나 “행위적 현상”에 관한 내용은 미국 행태주의정치학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종항·강영호는 『政治學原論』에서 위와 같이 정치현상을 “生活現象”으로서 정의하는 로야마의 기본 개념과 접근방식을 대폭 수용하는 가운데 ‘정치현상’을 “政治生活行爲”와 “政治生活過程”, 그리고 정당·국가 등 “政治生活形體”로 나누어 접근하였다.³³⁾ 그러한 구성 속에서 패전 이후 일본에서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대표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는 하라다 코우(原田鋼)의 『政治學原論』(朝倉書店, 1950)과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 등 심리학적 정치학 연구를 비롯한 행태주의정치학을 적극 활용했다. 정치학 교과서로서 이종항·강영호의 저작은 행태주의정치학에 입각하여 구성, 저술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지라도, 패전 이후 일본 정치학계의 새로운 연구경향을 디딤돌로 삼아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의 내용이 교과서의 주요한 축을 이루었던 한국 정치학계의 첫 번째 저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후(戰後) 한국에서는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을 주장하며 행태주의 정치학의 선구적인 학자로서 찰스 메리엄(Charles Merriam)과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의 저작들이 1950년대 중반 이후 다수 번역되었다.³⁴⁾ 이를 주도했던 김운태, 이우현 등은 미국 기술원조계획의 일환으로서 실행되었던 ‘미네소타 프로젝트(The Minnesota

33) 李鍾恒·姜永皓, 『政治學原論』, 螢雪出版社, 1959.

34)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번역·발간되었던 라스웰의 저작은 다음과 같다. 李善主 역, 『權力과 人間(Power and Personality, 1948)』, 東國文化社, 1958; 李克燦 역, 『政治動態의 分析(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1936)』, 一潮閣, 1960; 尹河璿 역, 『現代政治分析(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1936)』, 法文社, 1961; H. D. 라스웰, A. 카플란(Kaplan) 저, 金河龍 역, 『權力과 社會(Power and Society, 1950)』(上)·(下), 思想界社出版部, 1963.

Project)’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행태주의 정치학 수용에 한 축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³⁵⁾ 김운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주시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며,³⁶⁾ 행정분야 기술원조에 참여했던 학자들 중에서 김운태와 이상조는 행태주의를 비롯한 당대 미국 정치학계의 주요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치학 원론서를 발간하였다.

아래 <표 2>는 김운태, 이상조가 1961년 발간했던 정치학 원론서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두 학자는 책의 서문(序文)에서 ‘현대정치학(現代政治學)’의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政治現象의 科學的 究明은 近代政治學의 主流가 된 政治機構의 抽象的인 論議나 形式的 法律的 制度의 解說로서 充足될 수 없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 이로써 政治現象의 機構現象과 行爲現象을 포함한 政治生活을 體系의 으로 解明해야 할 것이며 이로서만 現代政治學의 理論的 實踐的 課題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³⁷⁾ (밑줄: 인용자)

그러므로 從來의 政治學이 政治機構의 抽象的 理論이나 法的·制度的 考察로 靜態的 面만을 論究하는 것으로서 足하다 하였으나, 現代의 政治學은 그 위에 다시 激動하는 政治過程과 諸集團의 政治的 活動等 即 動態的인 政治行態의 諸面도 考察하지 않고는 政治現象을 正確하게 認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政治學의 研究方向은 이 社會心理的인 政

35) 미네소타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행정분야 기술원조에 따른 미국 행정학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이봉규, 「이승만정권기 행정분야 기술원조 도입과 행정개혁론의 성격」,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참조.

36) 金雲泰, “美國 政治學의 最新傾向”, <東大月報>, 1954년 9월 6일, 2면; 金雲泰, “近代政治學의 展開와 動向”, <東國月報>, 1955년 6월 18일, 2면; 金雲泰, 「政治的 象徵의 操作」, 『政治學報』 2호, 서울大學校 政治學科, 1957; 金雲泰, 「政治過程論의 意義」, 『東國政治』 創刊號, 東國大學 政治學會, 1958; 金雲泰, 「行動科學論에 關한 一考察: 理論的 實證主義를 中心으로」, 『政治學報』 4, 서울大學校 政治學科, 1960 참조.

37) 金雲泰, 『政治學要論』, 博英社, 1961, 「序」.

治行態面을 重要視하게 되었고, 國際的으로 著名한 各大學의 政治學研究는 이러한 傾向을 顯著히 보이고 있다.³⁸⁾(밑줄: 인용자)

두 사람 모두 기존 정치학이 정치제도와 기구에 관한 제도적, 법적인 고찰에 그쳤음에 비해 ‘현대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이자 과제는 “동태적인 정치행태” 혹은 “행위현상”으로서 정치현상을 해명하는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현대정치학의 연구경향은 바로 미국 정치학계의 ‘행태주의’ 내지 ‘정치행태적 접근법’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金雲泰, 『政治學要論』(1961)		李相助, 『新政治學原論』(1961)	
제1편 정치학론	제1장 정치학의 의의 및 사적 전개	제1부 서론	제1장 정치학의 성질
	제2장 정치학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제3장 정치의 의의		제3장 정치의 개념과 본질
제2편 정치상황론	제1장 역사상황	제2부 본론	제4장 정치권력
	제2장 의식상황		제5장 정치의 지도원리
제3편 정치권력론	제1장 정치권력의 발생		제6장 정치조직의 제형태
	제2장 정치권력의 구조		제7장 통치체로서의 국가
제4편 정부형태론	제1장 대의제민주주의의 정치기구		제8장 주권론
	제2장 독재제의 정치기구		제9장 정치기능
제5편 정치과정론	제1장 여론 및 정치집단		제10장 정치집단
	제2장 균형과정과 변혁과정		제11장 정치과정론
			제12장 국제정치

<표 2> 『政治學要論』(金雲泰, 1961)과 『新政治學原論』(李相助, 1961)의 구성

김운태와 이상조의 정치학 원론서 구성(<표 2>)은 앞서 언급한 강영호·이종항의 원론서, 후술할 민병태의 원론서 등을 제외한 1950년대 발간된 다수의 정치학 개론서가 국가와 정부형태,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그 장절(章節)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38) 李相助, 『新政治學原論』, 서울高試學會, 1961, 「序文」.

있다. 특히, “政治權力”과 “政治過程”, “政治集團” 등의 장절 제목은 그 이전 시기 정치학 개론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들 내용은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운태와 이상조의 정치학 원론서는 패전 이후 영·미 정치학 연구경향 등을 수용하여 산출되었던 패전 이후 일본 정치학계의 연구성과 또한 대폭 참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령 김운태는 “제1편 政治學論”, “제2편 政治狀況論” 등 여러 부분에서 앞서 살펴본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의 『政治學原理』(1952)에 적지 않게 기대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하라다 코우(原田鋼)의 『政治學原論』(1950),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 정치학의 영향을 완전히 살펴볼 수 있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정치학 원론서 『政治の世界』(御茶の水書房, 1952) 등 일본 정치학계의 연구를 참조, 원용하였다. 따라서 김운태, 이상조의 정치학 개론서는 미국의 행태주의 정치학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당시 미국 정치학계에서 크게 중시하지 않았던 ‘정치학’에 관한 체계적 정의, 사회구조의 역사성 내지 사회체제의 역사적 변동, 이데올로기 등에서는 전후 일본정치학계의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저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한국의 정치학자 중에서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 수용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학자는 윤천주(尹天柱)였다.³⁹⁾ 그는 ‘행

39) 윤천주(尹天柱, 1921~2001)는 경북 선산 출신으로, 부산 東萊高普를 졸업하고 1943년 東京帝國大學 法學部 政治學科 入學하였으나 해방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1946년 京城大學 政治學科 編入, 1947년 졸업하였다. 1948년 9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1949년 3월 고려대학교 전임강사가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공군장교 입대하여 1953년 미국 空軍大學에서 3개월간 연수하였다. 1957년 하버드대학에 객원교수로 가서 1년간 수학 후 귀국하였다. 5.16쿠데타 이후 민주공화당 창당 작업에 참여하여, 1963년 12월 사무총장이 되었다. 1964~65년 문교부장관을 역임하고, 19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민주공화당)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여 부산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柳洪烈, “美國大學과 東洋 (7)”, <京郷新聞> 1957년 5월 14일, 4면; 尹天柱, 「나의 空軍時代」, 『코메트(The Comet)』 23, 공군본부 정훈감실, 1956, 60~61쪽; 「원로에게 듣는다: 첫 번째 순서, 윤천주 선생」, 『한국정치학회소식』 24권 5호, 한국정치학회, 2000, 8쪽.

태주의 정치학'을 접하고 심취하게 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52年 筆者가 空軍將校로서 美國을 求景한 뒤로 筆者의 研究態度에 큰 변동이 생겼다. 특히 羅城의 어느 書店에서 興味를 느끼고 샀던 Harold D. Lasswell의 National security and Individual Freedom (McGraw-Hill, 1950)은 筆者의 政治接近을 現實分析의 것으로 轉換시키고 말았으며, 筆者는 比較 '政府'의 範圍를 넘어서 比較 '政治'의 管簞에서 具體的 現實에 關心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됨에 따라 國家學에 대한 疑心은 더욱 커지고 1955年 가을 高大新報에 2次에 걸쳐서 「政治學에 있어서 制度的 研究와 機能的 研究」⁴⁰⁾를 발표하게 되었다.

…… 그러던 차 1957年 Harvard Yenching의 招請으로 Harvard大學校에서 留學할 機會를 가졌다. 가을, 봄의 2學期와 두 여름의 夏期大學에서 많은 講座를 聽講한 結果 筆者는 上記 論文의 內容이 거기에서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常識的인 것임을 發見하고, 自己 研究의 態度 및 結果에 自身을 갖게 되며, 나아가서 人間을 中心으로 한 自己의 政治接近法을 political behavior approach로 定着시키게 되었다.⁴¹⁾

윤천주는 한국전쟁 당시 공군장교로서 미국 연수 중 우연히 접하게 되었던 라스웰(Harold Lasswell)의 저작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학 연구 관점을 전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1957~58년 1년여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행태주의 정치학의 문제의식과 방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1958년 하반기부터 그 학문적, 사회적 의의를 열정적으로 설파했던 것이다.

내용 중복이 많기는 하지만, 그는 1950년대 후반부터 발표했던 논고를 수합, 증보하여 1961~62년 사이에 3권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尹天柱, 『韓國政治體系序說: 政治狀況과 政治行態』(초판), 文運堂, 1961; 尹天柱, 『韓國政治體系: 政治狀況과 政治參與』, 高麗大學校出版部, 1961; 尹天柱, 『(增補) 韓國政治體系序說: 政治狀況과 政治行態』, 文運堂, 1962 참조.

40) 尹天柱, “政治學에 있어서 制度的 研究와 機能的 研究(上)(下)”, <高大新聞>, 1955년 10월 31일~ 11월 7일, 2면.

41) 尹天柱, 『(增補) 韓國政治體系序說: 政治狀況과 政治行態』, 文運堂, 1962, 「序文」.

그는 행태주의 정치학에 관한 미국 정치학계의 주요 논문을 국내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신진 학자들과 함께 편역(編譯)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도 했으며,⁴²⁾ 여러 학술지와 잡지의 지면을 통해 행태주의 정치학의 소개·확산에 선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⁴³⁾ 그는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학의 학문경향을 독일에서 발원하여 일본 뿐 아니라 미국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 국법학적(國法學的) 정치학 경향으로서 ‘법’, ‘제도’ 중심의 정치학 접근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경향에 대해 “정치행태”를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법이라고 비판하며 그 일면성을 부각시켰다.⁴⁴⁾ 그러면서 ‘사람’ 중심, ‘사람의 태도와 행태’에 대한 심리학적, 통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정치’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정치행태’를 밝힘으로써 ‘병적(病的)인 정치행동’에 대해 진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치학으로서 행태주의 정치학의 의의를 역설하였다. 그는 “政治行態研究”란 “實驗的, 數學的 技術을 利用하여 政治行態의 一致性 (Uniformity), 反復的 行態型(Recurring Pattern of Behavior), 標本(Model)을 發見”함으로써 그를 토대로 “政治에 대한 豫言·決定·政治的 事件에 대한 對備·調整·修正·諸條件의 再整備 등을 講究하여 政治의 向上을 圖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행태주의 정치학은 “政治現象 또는 事件에 대

42) 尹天柱·禹炳奎·李廷植 편역, 『政治行態의 基礎理論』, 一潮閣, 1960. 번역에 참여했던 이정식은 김성희(金成熺)를 지도교수로 「美國의 Lobby 研究」(1956)를, 우병규는 민병태(閔丙台)를 지도교수로 「現代 ‘데모크라시’에 있어서의 大衆操作에 대하여」(1957)를 작성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정식의 경우, ‘압력단체’, ‘이익집단’의 정치 활동에 관한 정치과정론, 정치체계론 등 행태주의 정치학의 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비평하는 논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李廷植, 「壓力政治의 研究方法論」, 『思想界』 73, 1959년 8월호.

43) 윤천주는 당시 한국 정치학계에서 ‘행태주의 정치학’의 전도사로서 유명했다. 1965년 전국 정치학·행정학 교수 100명에게 받은 질문서 답변을 바탕으로 한국정치학계의 상황을 분석했던 김계수의 연구에서 ‘한국정치학에 공헌이 큰 학자’로서 가장 많은 지명(31명)을 받기도 하였다. 金桂洙, 『韓國政治學: 現況과 傾向』, 一潮閣, 1969, 52쪽.

44) 尹天柱, 「政治에 대한 行態主義的 接近: 法·制度 中心에 對하여 人間中心의 政治研究」, 『法政』 15권 2호, 1960년 2월호.

한 진단(Diagnosis)·치료(Therapy)·예단(Prognosis)을 일삼는 科學的인 社會病理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파악했다.⁴⁵⁾

이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의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정치행태에 대비하여 ‘저개발국가’의 그것이 갖는 불균형성과 불안정성을 강조하면서 그 극복 방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자면 우리의 政治體制에서 본 政治無關心性을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이와 함께 정치적 決定 또는 政策이 우리 政治體制의 全員이 갖는 매일매일의 요구에 균형이 잡히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 안정된 정치사회에서는 排出되는 결정 또는 정책이 政治體制에 대한 지지를 蓄積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마는, 低發國家에서는 非公式的인 방법으로서 터무니없이 나날이 일어나는 決定 또는 정책이 政治體制에 대한 지지를 蓄積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중요시되기도 하나, 우리는 全體主義의 위험이 많은 이것보다 政治化 또는 政治教育의 으로써 그 간격을 메꾸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⁴⁶⁾(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정치행태적 접근에 근거한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론, 즉 데이빗 이스턴(David Easton)의 <투입(input) - 정치체제/정치과정 - 산출(output)> 모델⁴⁷⁾에 입각하여 정치현상을 투입(input = demands or supports)과 산출(output = decisions or policies)의 기능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에 근거하여 미국·영국과 같은 안정된 정치체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투입과 산출의 균형(equilibrium)이 유지되나, 저개발국가에서는 투입-산출의 균형이 유지되기

45) 尹天柱, 「政治行態接近法の 要點」, 尹天柱·禹炳奎·李廷植 편역, 앞의 책, 13쪽.

46) 尹天柱, 「考慮하여야 할 政治體制」, 『思潮』 1권 7호, 思潮社, 1958년 12월호.

47) David Easton,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Vol. IX, No. 3, April 1957. 이 글은 윤천주에 의해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David Easton 저, 尹天柱 역, 「政治體系分析에 대한 한 接近」, 尹天柱·禹炳奎·李廷植 편역, 앞의 책.

힘든 상황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개발국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증시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체주의(全體主義)’로 전화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거나 ‘법적, 제도적 변화’라는 자극 보다는 “개인의 인식, 감정, 평가 작용으로서 구성되는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의 조종(操縱)을 통해, 즉 ‘정치화(politicalization)’ 내지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과정에 대한 고려 속에서 ‘정치교육(政治教育)’의 방법을 통해⁴⁸⁾ 점진적으로 불균형과 불안정을 제거해 감으로써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투입)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나아가 그는 미국 사회과학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 ‘근대화’에 관한 실증적인 이론화 작업을 산출했던 다니엘 러너(Daniel Lerner)의 이론을 수용하여, ‘민주화’와 ‘근대화’를 결부시켜 주장하였다.⁴⁹⁾ 즉, 유럽의 근대화과정을 ‘도시화’ → ‘문해력의 향상’ → ‘매스미디어 이용도 증가’ → ‘산업화’로 파악하는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과제로서 교육을 통해 농민들의 “개재감(empathy)”을 높여 정치참여의 태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화와 문자해득률의 상승, 그리고 산업화가 추진되어야

48) ‘정치화’, ‘정치사회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치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상술하고 있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 尹天柱, 「韓國人의 政治行態: 權力行使를 不均衡하게 하는 要因을 中心으로」, 『亞細亞研究』 3권 1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0년 6월.

이 논문에서 그는 아동기에 가족 부모에 의하여 시작되는 정치사회화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社會의 權威主義的 性格과 權力集中의 社會性格을 止揚하는 方法”으로서, 특히 ‘성인’들의 재(再) ‘정치사회화’를 위한 ‘정치교육’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패전 이후 독일에서 사회 각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예로 들면서, “國內 各地에 公報院을 設置하고, 講演會, 討論會, 座談會, 매스·콤을 利用한 啓蒙運動 等を 政府 및 有志者의 援助와 誠意에 의하여 眞正한 教育目的에서 遂行한다면 前記 邑 有權者의 投票行態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의 民主主義는 急速度로 向上될 것”(26쪽)이라고 하였다.

49) Daniel Lerner, *The Passing by Traditional Society: Modernizing The Middle East*, The Free Press, 1958. 러너의 근대화이론에 대해서는 Michael E. Latham, *Modernization as Ideolog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and London, 2000, pp. 36~37; Nils Gilman, op. cit., pp. 171~174 참조.

함을 주장했던 것이다.

윤천주는 이와 같은 러너의 근대화 이론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을 당시 한국사회의 투표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입증하려고 했다. 4월혁명 이후 7.29총선 직전이었던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학원생(3명), 학부생(3명)과 함께 경북 상주(尙州) 지역 각계각층 404명을 면접조사하여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의 부제 “**읍의 建設은 民主政治 向上을 意味한다**”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국토개발, 경제개발 사업과 연결된 읍(邑)의 건설, 즉 도시화를 “우리 政治를 民主化하는 第一步的 事業”이라고 결론지었다.⁵⁰⁾

이와 같은 이론 체계에 입각하여 그는 당시 한국의 상황을 도시화의 진전과 교육의 발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非西方國家보다 越等하게 發達”하고 있음을 근거로 “**後進國家**”라기 보다는 “**政治的으로 中進國家**”라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과 도시화의 지표에 비해 “**富와 産業化 指標**”가 “**너무나 低率**”임을 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육과 도시화의 효력이 ‘민주화’에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양자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機會의 不足을 더욱 느끼게 하여 挫折感 또는 不安을 助長**”함으로써 “**政治的 不安定性을 造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産業化**”를 위한 “**經濟開發計劃의 實踐**”이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는 것뿐 아니라 “**政治的 民主主義의 實現에도 第一意義**”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⁵¹⁾

요컨대, 윤천주가 그린 ‘민주화’의 길에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대중’의 정치적 열망, 집단적 운동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

50) 尹天柱, 「**邑民의 投票行態 - 邑의 建設은 民主政治 向上을 意味한다**」, 『亞細亞研究』 4권 1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1년 6월, 52쪽. 이와 같은 ‘투표 행태’에 관한 ‘계량적 분석’의 시도로서 비슷한 시기 ‘아세아재단’ 재정지원과 동아일보사의 후원 하에서 ‘실문지’를 활용하여 7.29총선에서 동아일보 독자층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오병현의 논문을 들 수 있다. 吳炳憲, 「**7.29總選舉의 分析: 東亞日報讀者의 政治的 態度를 通해 本 有權者의 投票傾向**」, 『亞細亞研究』 3권 2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0년 12월.

51) 尹天柱, 『**韓國政治體系: 政治狀況과 政治參與**』, 高麗大學校出版部, 1961, 283~292쪽.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행태주의 정치학과 러너의 ‘근대화론’에 근거하여 ‘민주화’를 위해서는 ‘도시화’와 ‘문자해독률’, ‘산업화’로 이어지는 ‘근대화’가 요청된다고 보았지만, 특히 ‘산업화’의 문제는 “長期的인 計劃”에 의해 성취해야 할 과제로 간주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民主主義的인 政治行態의 發展”을 위한 “短期 및 中期的 計劃”으로서는 “政治社會化 또는 政治化” 과정에 착안한 “정치교육”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IV. 한국에서 행태주의 정치학의 확산·정착과 비판의 논리

한국 정치학계에서 행태주의 정치학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던 윤천주는 이후 몇몇 정치학자들과 함께 정당, 투표행태 등을 전공했던 미국 정치학자 오스틴 래니(Austin Ranney)의 정치학개설서를 번역 출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世界的으로 政治學은 歷史的·哲學的 接近法에 의한 것으로부터, 現實 探究의 比較的·機能的 接近法에 의한 것으로 變하여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政治學에서도 이 傾向이 차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西方 國家의 政治에 관한 知識과 原理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政治에 관한 基礎知識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理解를 돕는 政治學概論을 構想하고 있는 譯者들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이 譯書의 內容에 韓國政府論에 관한 것 加味하면 우리의 政治學 敎育을 위하여 理想的인 概論書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본다.⁵²⁾(밑줄: 인용자)

52) 오스틴 래니 저, 尹天柱·禹文孝·金河龍·李廷植·李基遠 공역, 『政治學概論 (The Governing of Men, 1958)』, 乙酉文化社, 1963, 「譯者序文」. 오스틴 래니가 저술한 정치학 개설서는 지금도 한국 정치학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재이기도 하다. 그의 *The Governing of Men*(1958)은 1975년까지 개정판이 출간되었고, 이후 새로운 정치학 개설서로서 *Governing*(1971)을 저술하였다. 새로운 개설서는 개정판이 계속되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번역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은 그 여섯 번째 개정판(1993)이다. 오스틴 래니 저, 권만학 외 역, 『현대 정치학』, 을유

그는 오스틴 래니의 원론서와 같이 ‘행태주의’적 입장에서 정치학의 원리를 저술한 정치학 개론서에 ‘한국 정부’에 관한 내용을 부가한다면 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학 개론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강의하는 사람 또는 저술하는 사람에 따라 ‘정치학’ 또는 ‘정치학개론’의 교과목 내용이 다른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의 정치학교육에 객관적인 테두리 또는 개념적 도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오스틴 래니의 정치학 개론서 번역을 통해 ‘행태주의’ 정치학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학 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싶었던 그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행태주의 정치학의 확산, 정착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국정치학회가 ‘연구위원회’를 꾸리고 “政治學分野”의 “英語原書講讀用 및 大學院生들”을 위한 교재 제작에 나선 것이었다. 연구위원회에서는 “國內 各 大學 政治學 課程의 教科內容이 일정하지 않아 각각 편리한 內容의 講義를 해왔다”고 하면서 “外國의 보다 새롭고 劃期的인 內容의 著書나 論文”을 흡수하여 “어느 정도 統一된 教育內容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韓國政治學 分野의 劃期的인 轉換點”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간 목적을 밝히고 있다.⁵³⁾ 이 강독용 책자에 수록된 글들은 데이빗 이스턴(David Easton), 가브리엘 알몬드(Gabriel Almond)와 루시안 파이(Lucian Pye) 등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 비교정치 분야의 주요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그와 동시에 연구위원회는 원서강독용 교재의 한글판 자매편으로 『現代의 政治學』을 발간하였다.⁵⁴⁾ 이 책자는 원서강독용 교재에 비해 정치철학, 행정분야, 국제관계론 등의 비중이 다소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주축은 역시 행태주의 정치학과 비교정치 분야의 주요 텍스트들이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더불어 행태주의 정치학에 입

문화사, 1994, 「저자 서문」 참조.

53) 韓國政治學會 研究委員會 편, *Readings in Political Science*, 一潮閣, 1965, 「序文」

54) 韓國政治學會 研究委員會 편, 『現代의 政治學』, 一潮閣, 1965.

각한 한국 정치학자의 첫 정치학원론서라 할 수 있는 한배호의 『理論政治學』이 출간되었다.⁵⁵⁾

이와 같은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 확산 과정에서 행태주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또한 표명되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던 민병태는 『政治學』(1958)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인간과 인간의 행위 및 사회제도와 같은 주제 또는 자료는 이질적으로 파악되며,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제반 사실을 동일하게 다루어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 과학”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⁵⁶⁾ “政治科學과 政治理論”을 연관시키는 것을 통해 “하나의 體系의인 政治學의 樹立”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정치과학’을 정치적인 “사실을 수집, 분류”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정치이론’은 ‘가치판단’과 결부된 실천성을 띤 ‘이념(理念)’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의 문제나 이상(理想)의 실현 조건 등을 구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⁵⁷⁾ 그가 원용했던 어네스트 바커(Ernest Barker)의 “정치학의 임무”에 대한 주장, 즉 “‘행위’가 실제 어떻게 작용하며(actually work), 이것이 ‘과정’에서 어떻게 규제되며(legal work), 장래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여야 하는지(ideally to be)를 규명”⁵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의 문제 의식과 상통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과 관점은 『政治學』 개정판(1962) 서문(序文)에서 ‘행태주의정치학’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初版에서 主張한 바와 같이 政治學에 있어서의 科學的 制限性을 더욱 確信”하게 되었으며, 그 ‘제한성’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理念과 價値判斷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政治權力的 制度化하는 集團關係에서 一定한 型態를 摸索하는 「비헤이보리즘」의 理論的 限界를 卒直

55) 韓培浩, 『理論政治學—政治行動 要因分析』, 一潮閣, 1965.

56) 閔丙台, 『政治學』, 普文閣, 1958, 105쪽.

57) 앞의 책, 52쪽.

58) 앞의 책, 97쪽.

히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⁵⁹⁾

이와 같은 민병태의 ‘행태주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제자였던 김영국(金榮國)과의 공저(共著)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警戒해야 할 點은 政治學에서 方法論上의 理由만으로 價値를 排除하려는 一部의 傾向이다. 社會現象에는 科學으로 解明 못하는 事實이 許多하며 政治現象은 특히 그렇다. 政治學이 아무리 科學的 方法을 適用한들 解明할 수 있는 領域은 極히 좁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科學水準으로 解明 못하는 重要한 政治學의 傳統의 領域을 政治學에서 排除할 수는 없다. 價値의 領域은 이러한 意味에서 當然히 政治學의 對象이 되어야 하며 價値問題의 合理的인 解明이 앞으로 보다 더 높은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⁰⁾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학적 방법’에 의거한 정치현상의 해명은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하고, 정치학에서 “가치” 문제를 배제하는 경향, 나아가 “經驗的으로 檢論이 不可能한 領域을 社會科學의 對象에서 除外하려는 態度”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⁶¹⁾

민병태, 김영국 등은 정치적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치학에서 ‘이념’과 ‘가치’의 문제가 주변화, 배제되는 경향에 대해 원리적인 차원에서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권윤혁(權允赫)은 행태주의적 접근법은 “후진국의 사회과학”에 적합지 않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探求야말로 오늘날 後進國 社會科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課題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59) 閔丙台, 『政治學』, 普文閣, 1962, 「改訂第三版 序」, “卒直”은 “率直”의 오식(誤植)일 것이다.

60) 閔丙台·金榮國 공저, 『政治學要綱』, 三中堂, 1962, 84쪽.

61) 앞의 책, 100쪽.

왜냐하면 科學은 現實問題를 度外視한 이론의 유희가 아니며, ‘듀이’(John Dewey)의 주장처럼 그것은 마땅히 현실에서 야기되는 課題(problem)를 解決(solution)하기 위한 探求活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自覺에서 後進國의 社會科學이 그 課題인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을 탐구한다 할지라도, 우선 그 接近法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現代 後進國의 社會는 先進社會처럼 同質的으로 平均化되고, 水平化된 사회가 아니고 異質的인 對立과 矛盾을 내포한 사회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後進社會의 현상은 다만 社會心理의 表面層에 있어서 計量化를 추구하는 이른바 ‘비헤이비어리즘’(behaviorism)의 接近法만으로서는 그 真相이 파악될 수 없다.⁶²⁾(밑줄: 인용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社會現象의 차이”에 따라 그에 대한 접근법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현대 ‘후진사회’은 “社會表面現象의 計量化를 일삼는 Behaviorism만”으로는 그 진상에 다가설 수 없다고 하였다. “동질적이고 평균화되고 수평화된” 선진사회에서는 ‘행태주의 정치학’은 유의미할 수 있지만, “이질적인 대립과 모순을 내포”한 ‘후진사회’에서 사회과학은 ‘현실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념’의 탐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後進社會의 科學은 革新과 建設을 問題삼는 實踐的인 傾向에서 存在하는 것(Sein)의 分析뿐만 아니라 동시에 存在해야 할 것(Sollen)을 탐구하는 科學”이어야 하며, “社會現象을 實踐狀況에 있어서의 形成 聯關關係”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러한 “社會現象의 形成 聯關關係의 탐구”는 “社會의 諸側面을 統一的으로 파악하려는 이른바 統一的 社會科學”이어야 하며, “社會現象의 狀況的인 形成 聯關關係를 政治 社會學 내지 政治哲學的인 接近法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하였다.⁶³⁾

62) 權允赫, 『後進國 民族主義의 研究』, 大韓公論社, 1965, 7~8쪽. 이 책은 권윤혁의 박사학위논문(主論文)을 출판한 것으로, 부논문(副論文)은 「現代政治學의 課題와 갈 만하임의 政治社會學」이었다.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요지를 소개하고 있는 다음 글을 참조. 權允赫, “後進國의 民族主義”, <京鄉新聞>, 1966년 4월 13일, 5면.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통일적 사회과학의 실천적인 입장”, “정치사회학 내지 정치철학적 접근법”이란 무엇인가?⁶⁴⁾ 권윤혁은 “정치과학의 가능성을 원리적으로 문제 삼은 학자는 오직 칼 만하임(Karl Mannheim)”이라고 하며 그의 ‘정치사회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의 극복을 모색하여 ‘현대정치학’의 지향할 바를 제시하려고 했던 한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客觀的인 政治學은 經濟關係와 本來的인 人間關係에서 由來하여 政治社會의 領域에 開示되는 矛盾對立을 卽事象的으로 把握하고, 다음에 그 矛盾對立의 基底를 解明하는 哲學的 自覺을 기다려서 새로운 世界觀과 또한 生活原理를 파악하고 그 原理에 底礎함으로써 矛盾對立하는 對極的 勢力을 包越하는 새로운 生活의 法秩序를 實踐的으로 創造하는 理論을 探求하는 科學이라 規定할 수 있는 것이다. 卽 政治學은 哲學的 自覺에 底礎하여 社會經濟的 關係에서 造成되는 矛盾을 實踐的으로 超克하는 것이 그 本來的인 學問性格이며, 또한 그 客觀性은 對極的 黨派勢力을 包越하는 客觀性이라는 것이다.⁶⁵⁾ (밑줄: 인용자)

63) 권允赫, 앞의 책, 8~9쪽.

64) 이에 관한 충실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전후(戰後) 국면부터 1970년대까지 전개되었던 ‘정치학’, ‘사회과학’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과 철학적·이론적 체계, 그리고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념적 지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별도의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그 기본적 특징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에서 인용한 『後進國 民族主義의 研究』(大韓公論社, 1965)에 앞서 발표되었던 그의 주요 논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권允赫, 「政治學의 基礎理論」, 『大邱大學十周年紀念論文集』, 大邱大學, 1958; 권允赫, 「現代政治學의 課題와 Karl Mannheim의 政治社會學」, 『大邱大學論文集』 第2集, 大邱大學, 1960; 권允赫, 『革命路線의 摸索』, 靑丘出版社, 1961; 권允赫, 「民族民主主義」, 『思想界』, 1962년 5월호; 권允赫, 「都市大衆의 政治心理學」, 『新思潮』 2권 1호, 新思潮社, 1963년 1월; 권允赫, 「世界史의 새로운 方向과 史觀問題」, 『新世界』 2권 8호, 新世界社, 1963년 9월; 권允赫, 「韓國의 民族民主主義」, 『新世界』 2권 11호, 新世界社, 1963년 12월; 권允赫, 「韓國近代化와 民族主義的 民主主義」, 『空軍』 82, 空軍本部 政訓監室, 1964년 3월; 권允赫, 「民族指導理念의 摸索」, 『靑脈』 2권 4호, 靑脈社, 1965년 5월.

65) 권允赫, 「現代政治學의 課題와 Karl Mannheim의 政治社會學」, 앞의 책, 189~190쪽.

위 인용문에는 여러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권윤혁이 제시하는 ‘현대정치학’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黨派性’으로부터 벗어난 “客觀性”을 확보하는 것, 둘째 “哲學의 自覺” 내지 “새로운 世界觀과 生活原理”를 파악하는 것, 셋째 “實踐的으로 創造/超克하는 理論”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 설정이 기본적으로 칼 만하임의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에 대한 탐색을 이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⁶⁶⁾ 그는 만하임이 주장했던 지식인계급에 의한 ‘동태적 종합화’에 대해서는 “折衷의 次元을 超脫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intelligentsia계층의 독자적인 생활 원리와 그 세계관”의 자각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토대로 한 ‘정치세력의 형성’이 아닌, ‘철학적인 자각’ 내지 독자적인 ‘세계관’과 ‘생활원리’을 중핵으로 하는 “실천적인 주체로서의 정치세력”의 형성을 주장했던 것이다.⁶⁷⁾

요컨대, 권윤혁이 행태주의 정치학을 비판하면서 주장했던 “후진국의 사회과학”, 내지 “통일적 사회과학의 실천적 입장”이라는 것은 스스로 ‘현대정치학’의 과제로서 제시했던 ‘지식인계층’의 주도성, ‘이데올로기’의 중요성, 그리고 ‘정치적 실천성’에 입각하여 ‘후진사회’의 ‘현실’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사회과학이었다.

V. 결론

지금까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정치학계의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 수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66) 칼 만하임의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에 대한 탐색은 그의 대표작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제3장 「학문으로서의 정치: 가능한가」에서 잘 살펴 볼 수 있다. 칼 만하임 저,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김영사, 2012, 255~400쪽 참조.

67) 권允赫, 「現代政治學의 課題와 Karl Mannheim의 政治社會學」, 앞의 책, 188~189쪽.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 정치학계는 행태주의(behavioralism)로 대표되는 미국 정치학을 적극적으로 소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종항·강영호의 정치학 원론서 등에서는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하라다 코우(原田鋼) 등 패전 이후 일본 정치학계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디딤돌로 삼는 가운데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이 수용되었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의 원론서는 행태주의 정치학에 입각하여 구성, 저술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지라도, 한국 정치학계에서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의 내용이 교과서의 주요한 축을 이루었던 첫 번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운태, 이상조의 정치학 원론서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미국 기술원조계획의 일환으로서 ‘미네소타 프로젝트(The Minnesota Project)’의 행정분야 기술원조 프로그램이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행태주의 정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당시 미국 정치학계에서 주변화되어 있던 ‘정치학’에 관한 체계적 정의, 사회구조의 역사적 변동, 이데올로기 등에서는 전후 일본정치학계의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저술되었다.

행태주의 정치학의 국내 수용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학자는 윤천주였다. 그는 1950년대 중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행태주의 정치학의 문제의식과 학문적 특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의의를 설파했다. 그는 정치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정치행태’에 대한 심리학적, 통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병적인 정치행동’에 대해 진단, 조정, 수정할 수 있는 행태주의 정치학이 갖는 의의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영국에 대비하여 저개발국가의 정치체제가 갖는 불균형성과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치화’ 또는 ‘정치교육’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과 흡사하게 특정 ‘이데올로기’로서 부각되기 보다는 ‘주어진 조건’으로서 전제된 것이었고, 그만큼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태주의 정치학의 수용, 확산과정에서 민병태, 김영국 등은 정치적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치학에서 ‘이념’과 ‘가치’의 문제가 주변화, 배제되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비판적 입장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여 권윤혁은 표면적인 정치현상의 계량화에 치중한 행태주의정치학은 ‘후진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후진국의 사회과학은 ‘식민지 민족주의’와 같이 당면한 ‘후진사회’의 현실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이념의 탐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문헌

<자료>

- 權允赫, 「現代政治學의 課題와 Karl Mannheim의 政治社會學」, 『大邱大學 論文集』 第2集, 大邱大學, 1960, 149~193쪽.
- 權允赫, 『後進國 民族主義의 研究』, 大韓公論社, 1965.
- 金桂洙, 『韓國政治學: 現況과 傾向』, 一潮閣, 1969.
- 金雲泰, 『政治學要論』, 博英社, 1961
- 蠟山政道 著, 咸鍾贊 譯, 『政治學原理』, 現代文化社, 1956.
- 李相助, 『新政治學原論』, 서울高試學會, 1961
- 李鍾恒·姜永皓, 『政治學原論』, 螢雪出版社, 1959.
- 메리암 著, 金成燾 譯, 『社會變動과 政治』, 民衆書館, 1955.
- 메리암 著, 金雲泰·李宇鉉 公역, 『體系的 政治學(Systematic Politics, 1945)』, 一潮閣, 1956.
- 메리암 著, 金雲泰·李宇鉉 公역, 『政治學序說(Prologue to Politics, 1939)』, 第一文化社, 1955.
- 閔丙台, 『政治學』, 普文閣, 1958.
- 閔丙台, 『政治學』, 普文閣, 1962.
- 閔丙台·金榮國 共著, 『政治學要綱』, 三中堂, 1962.
- 오병헌, 「7.29總選舉의 分析: 東亞日報讀者의 政治的 態度를 통해 본 有權者의 投票傾向」, 『亞細亞研究』 3권 2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0, 29~70쪽.
- 오스틴 래니 著, 尹天柱·禹文孝·金河龍·李廷植·李基遠 公역, 『政治學 概論(The Governing of Men, 1958)』, 乙酉文化社, 1963.
- 尹天柱, 「邑民의 投票行態 - 邑의 建設은 民主政治 向上을 意味한다」, 『亞細亞研究』 4권 1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1, 1~59쪽.
- 尹天柱, 『(增補) 韓國政治體系序說: 政治狀況과 政治行態』, 文運堂, 1962

尹天柱, 『韓國政治體系: 政治狀況과 政治參與』, 高麗大學校出版部, 1961.

尹天柱, 『韓國政治體系序說: 政治狀況과 政治行態』(초판), 文運堂, 1961.

尹天柱·禹炳奎·李廷植 편역, 『政治行態의 基礎理論』, 一潮閣, 1960.

韓國政治學會 研究委員會 편, Readings in Political Science, 一潮閣, 1965.

韓國政治學會 研究委員會 편, 『現代의 政治學』, 一潮閣, 1965.

韓培浩, 『理論政治學』, 一潮閣, 1965.

Daniel Lerner, *The Passing by Traditional Society: Modernizing The Middle East*, The Free Press, 1958.

David Easton,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Vol. IX, No. 3, April 1957, pp. 383~400.

Harold D. Lasswell, *Psychopathology and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1930.

<연구논저>

기유정, 「근대 한국의 정치학과 그 학적 전환의 논리」, 『정치사상연구』 20집 1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14, 9~36쪽.

金河龍, 「政治學」, 『韓國現代文化史大系(2): 學術·思想·宗教史(上)』,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6, 237~277쪽.

대한민국 학술원 편, 『한국의 학술연구: 정치학, 사회학(인문·사회과학편 제9집)』, 2008.

박태균,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 역사비평사, 2004, 136~166쪽.

이봉규, 「이승만정권기 행정분야 기술원조 도입과 행정개혁론의 성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128~185쪽.

임성모, 「냉전과 대중사회 담론의 외연」, 『한림일본학』 26집, 한림대학교

- 일본학연구소, 2015, 239~264쪽.
- 정일준, 「미제국의 제3세계 통치와 근대화이론」, 『경제와 사회』 57, 비판
사회학회, 2003, 125~147쪽.
- 정일준,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 『미국학논집』 37권 3호, 한
국아메리카학회, 2005, 66~92쪽.
- 정해구, 「한국 사회현실과 한국 정치학」,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준비위원
회 편,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
100~112쪽.
- 陳德奎,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 1, 한길사, 1983, 65~
85쪽.
- 韓國政治學會五十年史 編纂委員會, 『韓國政治學會五十年史(1953~2003)』,
韓國政治學會, 2003.
-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田口富久治・中谷義和 編集, 『現代政治の理論と思想』, 青木書店, 1994
- 中谷義和, 『アメリカ政治學史序說』, ミネルヴァ書房, 2005.
- Albert Somit and Joseph Tannenhaus,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llyn and Bacon, 1967.
- Crawford B. MacPherson, *Democratic Theory: Essays in Retrieval*, Clarendon
Press, 1973.
- Gabriel Almond, *A Discipline Divided*, Sage Publication, 1990.
- Gabriel Almond, *Ventures in Political Science*, Lynne Rienner, 2002.
- James Farr and Raymond Seidelman, ed., *Discipline and Histo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 James Farr, J. S. Dryzek, S. T. Leonard, ed., *Political Science i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John G. Gunnell, *The Descent of Political The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3.

Michael A. Baer, Malcolm E. Jewell, Lee Seligman, ed., *Political Science in America*,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1.

Michael E. Latham, *Modernization as Ideolog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and London, 2000.

Nils Gilman, *Mandarins of the Futu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A Study on Korea's Acceptance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between the 1950s and the 1960s

— With Much Focus on Behavioralism in Political Science —

Hong Jeong-Wa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presented by behavioralism was actively introduced to Korean political scientists in the late 1950s. Their attraction to behavioralism was premised on their observation that the idea would make it possible to diagnose, manage and adjust pathological 'political activities' by analyzing psychological and statistical resources related to the political behaviors that constitute politics and political systems. These political scientists emphasized the imbalance and instability of political syste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s compared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nd contended that political problems in the former nations could be gradually overcome through political education. But some Korean political scientists found it critical that behavioralism had shown a tendency to marginalize the question of 'ideology' and 'value,' and thus argued that behavioralism was not applicable to 'underdeveloped societies' since it focuses on the quantification of superficial political situations.

*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Key words: Behavioralism, modernization theory, Yun Cheon-ju, Min Byeong-tae, Kwon Yun-hyok, Royama Masamichi

필자 E-Mail: goldvalley@naver.com

투고일: 2019년 04월 05일 / 심사완료일: 2019년 05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9년 05월 13일